

보도시점 3.20.(금) 조간 < 3.19.(목) 12:00 >

스타트업의 상상력과 소공인의 장인정신이 만드는 지역의 제조혁신

- 아이디어와 현장경험을 결합한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제조 생태계에 새로운 협업 모델 확산
- 지역 스타트업-제조 소공인 협업형 시제품 제작에 42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월 20일(금)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2억 원 규모로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제품을 함께 개발·제작하는 협업형 사업이다.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다.

스타트업은 아이디어와 시장 관점을 제시하고 소공인은 축적된 경험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제품을 구현해 나간다. 특히, 양측이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설계, 제작 방향을 함께 조정하도록 하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제조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과 시제품 제작 역량을 갖춘 소공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두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도에 소재해야 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최대 1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CAD설계, 목업, 금형제작 등 협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제 관리기관으로 참여해 컨소시엄별 멘토링을 제공하고 협업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밀착지원에 나선다. 특히 시제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설계 수정과 제조현장 피드백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목표와 세부계획 변경도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 수요에 더욱 정교한 대응이 기대된다.

아울러 협업성도가 우수한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카카오메이커스, 와디즈 등 국내 대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후속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시제품 제작에 머무르지 않고 판로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스타트업과 소공인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과 시장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모델”이라며,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장의 제조 역량과 연결돼 실제 사업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제조 혁신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 20일(금)부터 4월 3일(금)까지 혁신바우처 플랫폼(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세부 공고 내용 등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지역혁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820)
		담당자	사무관	홍승한 (044-204-7572)
			주무관	라채민 (044-204-7295)

□ 사업목적

- 스타트업의 혁신과 제조 중소기업의 장인정신을 연결하는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기반 제조창업의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제조 분야 스타트업* + 소공인(제조 중소기업) 컨소시엄
*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제조분야 아이디어(아이템)를 보유한 기업으로 확장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기술지원, 마케팅 등 컨소시엄당 1억원
- (규모) 총 42억원(42개 컨소시엄)
- (보조율) 기업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50~90% 차등 지원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비수도권	우대	특별
3억원 이하	90%	95%	95%
3~10억원	80%	85%	90%
10~50억원	70%	75%	80%
50~140억원	50%	55%	60%

* (지방기업 우대분류표) 참고

- (지원분야)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8개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컨설팅(2개)	경영기술전략, AX-DX,
기술지원(4개)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마케팅(2개)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광고 및 홍보지원

- (과제관리) 과제관리 전담기관(창경센터) 활용 밀착 지원
 - 협업 계획의 적절성, 진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컨소시엄별 멘토링을 지원, 컨소시엄 내 분쟁, 과제추진 지연을 방지
 - 스타트업-소공인 간 협업은 반복적인 설계 수정과 조정이 핵심이므로 과제 변경을 폭넓게 인정하여 시제품 완성도 제고

참고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구분	비수도권 (보조비율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우대지원 지역 (보조비율 +10%)	특별지원 지역 (보조비율 +15%)
서울	-	-	-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7개 자치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충북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